

문 18: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것이 무엇인가?

답 18: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것과 근본 의가 없는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성경적 근거: 로마서 5:18-19, 3:10, 5:6, 12, 8:7-8; 고린도전서 15:22; 에베소서 2:1-3; 창세기 6:5; 마태복음 15:19; 야고보서 1:14-15

질문 1: 사람의 무엇이 죄가 되는가?

질문 2: 아담의 첫 범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무엇을 손상시켰는가?

질문 3: 원죄는 무엇을 또 유발하였는가?

질문 4: 원죄를 지은 사람이 의로운 것을 할수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 5: 원죄는 사람을 어떤 상태로 이끌었나?

질문 6: 사람이 원죄의 올가미에서 빠져 나올수 있나요?

설명:

지금까지 우리는 원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원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아담의 죄로 우리는 죄안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원죄는 모든 인류를 죄의 올가미로 뒤집어쥘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죄에서 허덕이는 삶에서 빠져나올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된 것이다.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공평하지 않은 처사이지 않느냐고 반문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평의 이슈가 아니라 공의의 이슈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공부한바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있어야 될 지위에서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의 본질, 위치, 상황이 모두 뒤집혀 버린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다 원죄는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고 말았다. 하나님과 동행할수 있도록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는 죄를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원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영똥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바와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원죄를 상속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원죄로 인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전적부패” 또는 “전적타락”은 칼빈의 5 대 교리 가운데 첫번째되는 교리이다.

칼빈의 5 대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 전적부패 (Total Depravity)
-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 성도의 궁극적 구원 (Perseverance of the Saints)

다른 네가지는 다음에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적부패에 대해서만 공부하기로 한다. “전적부패” 또는 “전적타락”은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된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이다. 그의 원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택할수 없는 영적 현실속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선택권을 상실하게 만든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수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데 구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원죄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원래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는 더이상 전혀 있지 아니함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와 의로운 성품이 더 이상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타락의 가르침을 잘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말씀과 전적타락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람의 눈에 보이기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어떤 좋아보이는 일도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과 전적타락의 교리가 가르치는 것이다. 생명의 언약을 어긴후로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본다면 사람의 어떤 선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원죄의 문제는 원죄에서 끝나지 않는다. 원죄는 끊임없이 다른 죄와 죄악을 유발하며 도발시킨다. 사람이 마치 기름이 잔뜩 발린 미끄럼틀에서 견잡을 수 없이 밀려내려가는 것 같이 원죄는 마치 사람이 견잡을수 없이 죄속으로 점점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원죄는 마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같아서 가만히 두면 끝없이 번성하게 되는것과 같이 죄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왕성하게 되면서 완전히 사람을 죽게하는 것이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하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마셨다고 했다. 그렇다 결국 죄가 사람을 삼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이다. 그리고 원죄가 바로 우리의 죄인 것이다.

원죄로 물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혀 나타낼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원죄와 함께 사라져 버렸고 오직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차게 된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마음이 마치 피와 DNA 를 타고 우리에게 까지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과 영성의 원동력과 같다. 예를 들면 아주 멋진 2011 년 형 벤즈 차를 새로 구입했다. 밖에서 보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마음에 든다. 그러나 그 차에 있는 밧테리와 모든 전기선을 다 제거해 버리면 그 차는 아무쓸모없는 차가 된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은 마치 벤즈 차에 밧테리와 모든

전기선을 제거해 버린것과 같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갈수 없다. 원죄는 이렇게 사람을 망쳐 놓은 것이다.

원죄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원죄는 사람의 죄성을 상상치 못 할만큼 더 악화시켜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수 없을 정도로 심한 죄악가운데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적부패 상태에는 있는 인간들이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몇가지 준비하신 것이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란것을 마음에 심으셨다. (로마서 2:15) 이 양심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불을 만지면 뜨거워 얼른 손을 끌어 당기듯이 양심은 사람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런 양심도 예민성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인도한다.

**둘째**, 하나님은 국가와 다스리는 자들을 두셨다. (로마서 13:1-5)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죄인들이 마구자비로 자신들의 죄성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을 견제하게 하셨다. 이것 역시 완전하지 못하며 국가의 모든 법을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2:15)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하셨다.

**넷째**,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그리고 가정을 위하는 마음을 통해 함부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막으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로 흑암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16)

우리는 죄의 죄성과 죄의 잔인함을 깨달아야 한다. 죄란 결국 하나님을 떠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원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처럼 우리를 살리신것이다. 할렐루야!